순천 푸드 · 아트 페스티벌 '2018 문화관광축제' 선정

축제의 성과 및 발전가능성 높은 평가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2018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017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은 올해 2회째로 짧은 육성 기간을 감안하면 전남도 대표축제 선정에 이어 2018 문화관광축제로 격상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8일 2018년도 대표문화관광축제로 얼음나라산천어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을 비롯해 최우수축제 7개와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1개 등 41개 2018 문화관광축제와 40개 2018년 문화관광육성 축제를 선정 발표했다.

2017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은 순천시 대표축제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신규진입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성과 및 발전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축제의 경우 음식분야에서는 순천 대표음식 판매 및 홍보, 아트분야에서 거리예술공연 등 새로운 콘텐츠 도입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그 결과 37만명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115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올리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참여를 통해 보다 흥미롭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위상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해외홍보, 마케팅, 축제예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전지훈련 · 전국대회 유치로 93억 경제효과

10개 종목 171개팀 선택…명품 스포츠 도시 이미지 기대

광양시가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93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는 물론 명품 스포츠 도시 이미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백운기 축구대회와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등 9개 전국 대회 개최해 왔었다.

또 도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설확충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전지훈련팀 유치와 각종 전국대회 개최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오래 전부터 동계 전지훈련의 메카로 불릴 만큼 다양한 종목의 선수단을 유치해 전지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해 전지훈련지로 광양시를 찾은 선수단은 축구, 육상, 씨름, 태권도, 탁구 등 10개 종목 171개 팀 3,415명으로 관련 인원을 포함하면 7만 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와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연간 93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올렸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56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온화한 기후, 잘 갖춰진 체육시설, 맛 좋고 풍부한 먹거리, 종목별 우수팀 소재 등 비교 우위의 전지훈련 여건을 바탕으로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체육단체와 함께 펼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 수영대회 등 9개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33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상훈 체육진흥팀장은 "올해에도 전지훈련팀 유치와 다양한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명품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해 100억 원 상당의 지역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시, 섬진강변에 차(茶) 전시 판매장 개장한다

다양한 국산차 체험 가능…오는 3월 개장

광양시는 오는 3월 개장을 목표로 섬진강변 광양매화축제장 인근에 위치한 가남농원(대표 김승희) 부지에 광양매실차 전시 판매장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커피문화의 확산과 넘쳐 나는 대체음료 출시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국내 차(茶)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전시 판매장을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차(茶)와 사람, 여유와 소통 이라는 컨셉으로 운영되는 차 전시 판매장은 건강한 마실 거리를 찾는 소비자들과 대한민국 봄꽃축제 중 가장 먼저 열리는 광양매화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가득한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양매실차를 비롯해 보성녹차 등 전남동부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국산차를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병남 매실정책팀장은 "이번 전시 판매장 개장과 운영을 통해 광양매실차를 널리 홍보해 나가겠다"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茶) 소비량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자체평가 운영계획안 마련

시 산하 전 부서 대상 행정역량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순천시는 주요시책과 국가사무 등에 대해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자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평가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부서이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각종 지시사항을 평가하고, 축제, 재해재난, 현안업무 등 시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의 주요시책, 위임사무 등을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같은 외부평가에 대해서도 사전 지표관리를 통해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할 계획이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과 평가결과 등을 심의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희망센터, 군민의 희망공간으로 거듭난다

자활센터 · 자원봉사센터 · 여성새일센터 · 다문화센터 등 입주

화순희망센터에 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 자원봉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복지사업단이 입주하면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화순군은 지난달 28일 화순희망센터 준공식을 갖고 복지사업단 업무를 시작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구 한전사옥을 리모델링해 지난 5월 지역자활센터 이전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자활사업단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복지사업단이 입주했다.

군은 총사업비 12억 5천만을 들여 기존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2층 건물을 별도로 증축, 연면적 1,328㎡ 규모로 화순희망센터를 지난해 7월에 착공해 10월에 준공했다.

그동안 화순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청소사업단 등은 건물 협소 등으로 한 건물에 입주하지 못해 관리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베이커리, 세탁, 청소, 도시락사업단 등도 모두 한 곳에 입주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순희망센터 준공으로 주변 경관도 개선되고, 화순문화원과도 인접해 활용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희망센터 준공식에는 김경호 화순부군수, 강순팔 군의회 의장, 희망센터 입주 종사자 등이 함께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17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달 2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종무식 자리서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서 교부식을 가졌다.

가족친화인증은 기관(기업) 종사자를 위한 자녀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를 위한 시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다.

한국경영인증원은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직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직원인터뷰, ▲가족친화 경영 만족도 부문 등의 심사 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올해 나주시를 가족친화 인증기간으로 선정했다.

시는 평소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중요시 여기고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통한 '가정의 날' 운영,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